

“개인정보 유출 피해 규모 1억7572만명...1명당 3번 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예방부터 사후 조치까지 짜임새 있게 제도를 개선해야”

우리나라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극심한 수준이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정보 유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사이버보안 관련 조직 전면 개편 이후 개인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1억7572만 명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 1인당 3번꼴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셈이다.

지난 9년간 개인정보 유출이 가장 심했던 해는 △2011년 5032만건 △2010년 3950만건 △2008년 2988만건 △2014년 2853만건 △2012년 1295만건 순이다.

2011년은 네이트 3500만건, 2010년은 국내 유명 백화점 사이트 등에서 650만건, 2008년은 옥션 1081만건, 2014년과 2012년은 KT에서 각각 1170만건과 873만건이 유출돼 가장 큰 과장을 불러일으켜 왔다.

년도	유출업체수	피해 규모
2008	2	2,988
2009	1	9
2010	3	3,950
2011	4	5,032
2012	2	1,295
2013	5	19
2014	73	2,853
2015	13	323
2016	19	1,103
합계	122	17,572

방통위는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최근 4년간 357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며, 같은 기간 한국인터넷진흥원도 개인정보 보호 연구·용역을 위해 10억3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더불어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 제도 개선과 사업자·이용자 교육 등을 강화했으나 올해 다시 1102만건의 정보가 유출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 규모로만 보면 이미 개인정보는 더 이상 개인

의 것이라고 말하기 힘들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투입되는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방통위의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 처벌수위는 시능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지난 2014년 117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KT에 방통위위원회는 7000만 원의 과징금과 1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KT는 방통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롯데홈쇼핑은 고객 개인정보를 팔아 37억3600만원을 벌었으나, 방통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2000만 원의 과태료와 1억8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그쳤다.

신 의원은 “국가와 기업의 태만한 대응으로 인해 이렇게 불법과 탈법이 여전히 횡행하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예방부터 사후 조치까지 짜임새 있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찬 기자

카카오톡 전국서 장애... 경주 지진 여파 트래픽 폭증

지진 이후 카톡 장애 1시간 넘게 지속 트래픽 몰리며 장애 발생

카카오는 12일 오후 발생한 카카오톡 장애 원인이 일시적인 트래픽 폭증으로 인한 서버 오류였다고 밝혔다.

카카오 측은 이에 대해 “이날 오후 7시45분부터 9시52분까지 카카오톡 사용이 원활하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며 “이는 지진 영향으로 순간적으로 트래픽이 폭증하면서 서버에 오류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정상화 됐고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고 덧붙혔다.

관련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44분경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9km 지역에서 규모 5.1 지진이 일어났다. 이어 오후 8시32분경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8km 지역에서 규모 5.8 규모의 지진이 추가로 발생했다. 1차 지진은 역대 4번째, 5.8규모의 본진은 1978년 기상청의 계기지진관측 이래 가장 큰 규모다.

심동윤 기자



지역케이블, 경주 지진 발생에 재난방송 신속 보도

지역시민기자단이 제보해준 다양한 영상과 사진, 인터뷰 활용

경주지역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서 각 지역채널들이 신속하게 소식을 알렸다. 13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에 따르면 지진의 진원지인 경주지역을 방송권역으로 하고 있는 CJ헬로비전 신라방송을 비롯해 인근지역의 케이블TV 방송인 티브로드, 현대HCN은 지진이 발생하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CJ헬로비전은 신라방송, 대구방송, 영남방송의 지역채널을 통해 자막뉴스로 지진 발생 현황을 속보로 보도했으며 해당지역의 상황을 10분 분량의 뉴스특보로 편성 방송했다. 지역시민기자단이 제보해준 다양한 영상과 사진, 인터뷰를 통해 현장의 소식을 신속히 보도했다.

티브로드는 TCN대구방송을 비롯한 대구와 경상도 지역 6개 방송사에서 지진이 발



생한 이후 상황을 지역채널 자막을 통해 보도하고 있다. 부드, 현대HCN은 추석연휴에도 향후 발생하지 모르는 상황에 신속히 전달하기 위해 보도 팀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미래부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이상 발생여부 모니터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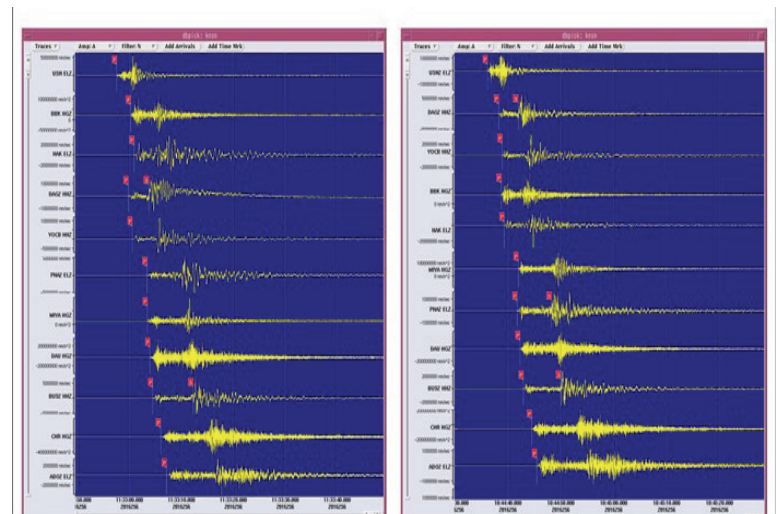
‘정보통신망 및 원자력 관련시설 비상점검 대책반’ 을 설치·운영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12일 경주 일대에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통신 장애가 모두 정상화 됐으며, 이후 통신시설 상황에 대해 계속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지진으로 트래픽 폭증으로 통신지연, 메신저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으나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을 통해 주요 방송사 및 164개 방송사업자에게 지진 발생 상황을 즉시 통보하고, 통신지연 등의 장애 상황을 바로 점검했다.

미래부는 통신지연은 21시 40분을 기점으로, 메신저 서비스 장애는 21시52분을 기점으로 정상화됐음을 확인했으며 이후 통신시설 상황에 대해 계속 모니터링 중이다.

지진 발생장소에 인접한 포항방사광가속기, 양성자가속기 등 미래부 소관 원자력 관련 시설역시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기관별로 시설물



에 대한 정밀점검을 진행할 방침이다. 미래부는 지진 발생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기획조정실장을 반장으로 한 ‘정보통신망 및 원자력 관련시설 비상점검 대책반’ 을 설치·운영 중이다.

미래부는 이동통신 3사, 네

이버, 카카오 등 11개 통신 관련 기관 및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3개 원자력 관련 기관 등에 시설 점검 철저 등을 통보 조치했다. 시설물 이상 발생 여부 진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체봉 기자